2026년 04월 07일
KIWOOM DAILY ISSUE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디지털자산/원자재 Analyst 심수빈 sb.shim@kiwoom.com

OPEC+ 증산,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?

Summary

- 사우디 등 OPEC+ 내 8개국은 5일(현지시간) 회의를 통해 5월 증산을 발표했으며, 증산 규모는 4월과 동일. 또한 OPEC+는 미국-이란 전쟁 이후 발생한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,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
- 한편, 3월 OPEC의 산유량은 2월 대비 20% 감소. 미-이란 전쟁이 중동 원유 공급 차질로 연결되었음을 확인. 이를 고려할 때 이번 OPEC+의 증산 결정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. 유가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미-이란 휴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가시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

사우디 등 OPEC+ 8개국, 5월 일평균 20.6만 배럴 증산 발표

5일(현지시간) 사우디 등 OPEC+ 내 8개 국가는 5월 산유량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, 5월에도 증산을 이어갈 것으로 결정했음. 2026년 5월 전체 증산 규모는 일평균 20.6만 배럴로 4월과 동일. 2025년 증산 경로와 비교해보면, 2025년 OPEC+는 4월 증산을 시작한 이후 5월에 증산 규모를 확대. 이에 당사는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2026년에도 5월 증산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변화 부재. 이는 최근 미국-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생산 차질에 따른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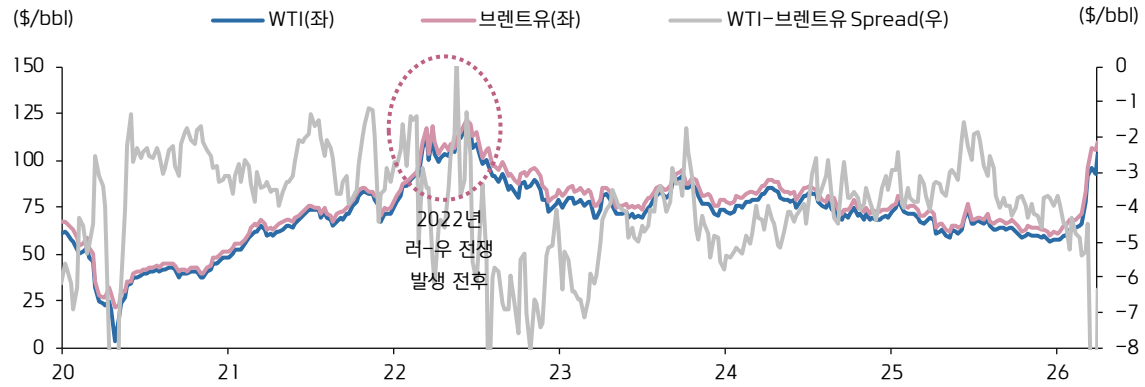
한편, OPEC+ 내 주요 산유국은 회의 이후 발표문을 통해 원활한 에너지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상 항로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. 또한 미-이란 전쟁 이후 발생한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, 손상된 설비를 정상화하는데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. OPEC+내 주요 8개국은 계속해서 시장 상황 및 감산 준수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매달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, 다음 회의는 5월 3일(현지시간) 진행될 예정.

원유시장,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여부에 주목

2월 28일 미국-이란 간 전쟁이 발생한 이후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. 2024년, 2025년과 달리 중동 정세 불안이 실제 공급 차질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.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약 한달간 지속되면서 걸프 국가의 원유 수출과 생산에 차질 발생. Rystad Energy에 따르면, OPEC의 3월 산유량은 일평균 약 2,295만 배럴로, 이는 2월 대비 약 20% 감소한 수준. 또한 국가별 산유량 데이터를 통해 OPEC 내 걸프 산유국의 생산 감소가 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. 알제리 등 OPEC 내 아프리카 산유국의 경우 2월 대비 3월 산유량에 큰 변화가 부재했으나, 이라크, 쿠웨이트, UAE의 3월 산유량은 2월 대비 30%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. 우회 수출 방안이 있는 사우디 산유량 또한 14% 감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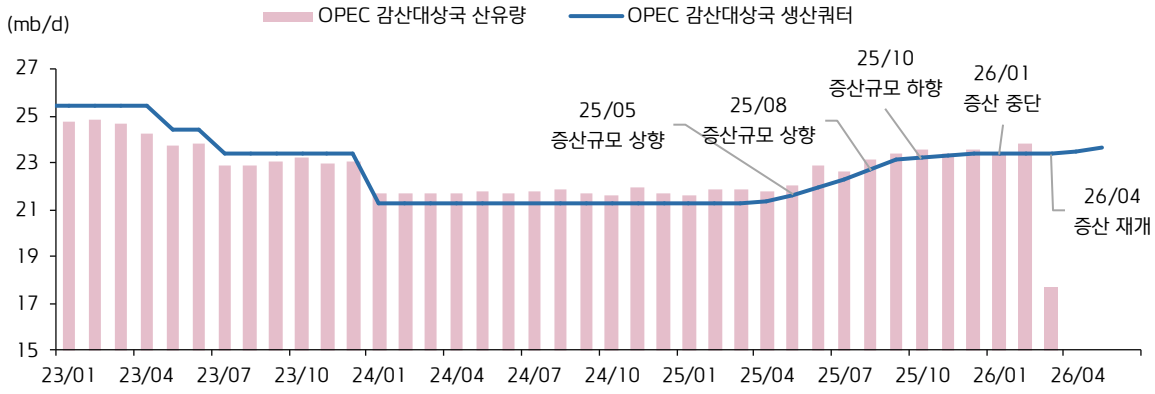
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지된다면 OPEC+의 증산 결정이 실제 생산 확대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임. 이에 따라 관련 소식이 현재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. OPEC+의 증산 의지를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나,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미-이란 휴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가시화될 필요. 현재 미-이란 간 단계적 휴전이 논의되는 만큼 유가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. 그러나 과거 러-우 전쟁 등 공급 차질을 동반했던 경우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유가 약세는 제한되며 이슈 발생 이전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. 현재 OPEC+가 에너지 시설 정상화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, 중동 정세가 진정되더라도 유가는 전쟁 전(WTI 기준 배럴당 $60대)보다 높은 $80 내외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.

최근 국제유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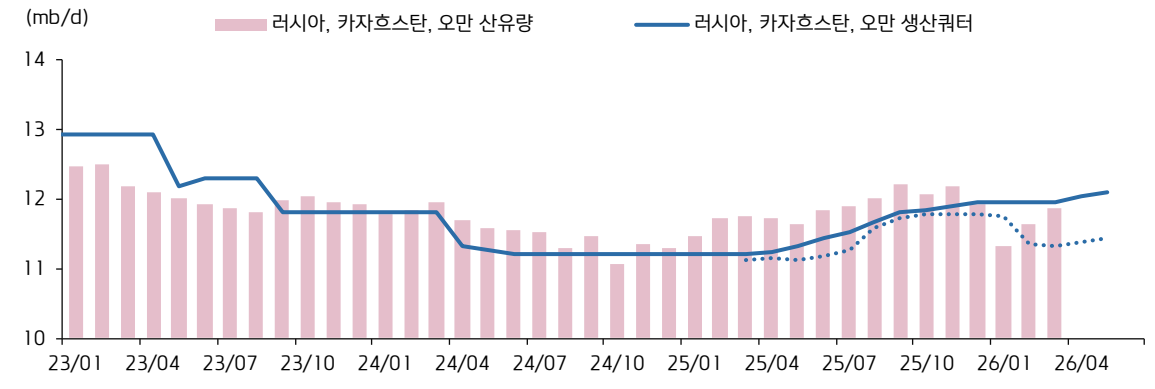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OPEC 감산대상 산유국 생산쿼터와 산유량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주: 2025 년 OPEC+ 내 증산 참여 국가는 알제리, 이라크, 쿠웨이트, 사우디, UAE, 카자흐스탄, 오만, 러시아

카자흐스탄, 오만, 러시아 산유량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주 1) 2025 년 OPEC+ 내 증산 참여 국가는 알제리, 이라크, 쿠웨이트, 사우디, UAE, 카자흐스탄, 오만, 러시아
주 2) 파란색 점선은 보상감산안을 반영한 생산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